

성경에 보면 보냈다는 구절중에 대표적인 2 구절이 있습니다. 두 구절 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요 17:3에 나와있는 그 보내심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는 보내심과 또 하나는 요 8:29에 나오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는 그 보내심입니다.

보냈다는 뜻은 같지만 단어가 다릅니다. 요 8:29에서는 ‘펴포’ (pempo)를 쓰고 있는 반면에 요 17:3에서는 ‘아파스텔로’ (apostello)를 쓰고 있습니다. ‘아파스텔로’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보냄을 말하고 ‘펴포’는 보낸 일에 행함을 그러니까 둘 다 보냈다는 뜻이지만 하나는 사명적인 보냄을 말하고 또 하나는 보냄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냄입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보냄이었습니다.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보냄이었습니다. 간고와 질고 즉 어렵고 힘들게 고생하며 병으로 말미암은 고통까지도 겪어야 하는 보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시와 멸시까지도 받아 사람들에게 싫어버린바 되며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양손 양발에 못에 박혀 죽어야 하는 보냄이었습니다 (사 53:1-7).

하지만 주님은 그런 보냄을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행하셨습니다 (히 12:2).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죄인의 구원이며 의인의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치욕이 떨어 정도의 대우를 받았어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 13:53-57). 주님을 오해했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 1:1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 11:19).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창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 21:31-32).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조롱거리와 세상의 없신여김을 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전 1:26-29).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희생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뒹뒹이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함께 하셨습니다 (롬 5:6).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도 (롬 5:6), 우리가 죄인일 때에도 (롬 5:8),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함께 하셨습니다 (롬 5:10). 이런 보내심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곧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으로 가득 차여있는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십자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이처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했기에 과연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사상과 이념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상과 이념입니다! 십자가는 가로 세로 모양을 뛰어넘습니다.

십자가는 남을 살리는 사랑이요 능력입니다. 남이 살아야 기쁨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십자가 안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것을! 남을 돌봐주는 것도 십자가 정성으로, 남을 일으켜주는 것도 십자가 뒷받침으로.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최고입니다. 십자가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 이상 사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를 지혜나 재간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믿음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순종일뿐입니다! 십자가의 행함일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삼위일체’입니다. 십자가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끼리끼리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는 언제든지 하나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그 부모는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아담의 근본된 땅은 가나안 땅이며 아모리 땅이었습니다 (창 3:23, 겔 16:3).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이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비유적으로 나와있는데 아모리는 ‘서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진 곳입니다.

어둠과 우상의 근거지입니다 (삿 6:10). 자아가 강한 자, 자기 생각이 강할 때가 아모리입니다 (암 2:9). 어둠을 떠나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근본은 먼지같은 그저 하찮은 것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생기 곧 말씀을 받고 산 영이 된 것입니다. 그 산 영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여자입니다 (창 2:22). 생명은 희생 곧 십자가로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 곧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 때 말입니다!